

박형준 / 2월 / 도약 GS / 7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29059	20.2	14	20	10.5	64.7	1	2.78%	7	36
534241	20.7	14	18.5	10	63.2	2	5.56%	7	
534806	18.5	13.5	18	11	61	3	8.33%	6	
529237	19	13.5	16.5	10.5	59.5	4	11.11%	5	
534196	20.7	12.5	16	10	59.2	5	13.89%	6	
534160	20.7	14	13.2	10.5	58.4	6	16.67%	5	
534343	20	13	15.5	9	57.5	7	19.44%	4	
534231	19.5	13.5	14.5	8.5	56	8	22.22%	6	
534194	19.5	13	11.5	11	55	9	25.00%	4	
534175	20.7	10.5	13	10.5	54.7	10	27.78%	5	
534165	20.5	10.5	14.5	9	54.5	11	30.56%	5	
534166	18.5	12	16	7.5	54	12	33.33%	4	
534381	20.7	13	12	7.5	53.2	13	36.11%	6	
534233	19	13	13	7.5	52.5	14	38.89%	4	
534161	20.7	12.5	12	6.5	51.7	15	41.67%	5	
534355	20	11	12	8.5	51.5	16	44.44%	5	
534348	18.5	12.5	12	8	51	17	47.22%	5	
534388	18.5	12	11	9.2	50.7	18	50.00%	5	
534391	19	13	10	8.5	50.5	19	52.78%	4	
534365	20.2	6.5	14.5	9	50.2	20	55.56%	5	
529129	17.5	11.5	14	7	50	21	58.33%	5	
529165	19.5	11.5	11.5	7.5	50	21	58.33%	5	
534423	19.5	12	13.5	5	50	21	58.33%	6	
529402	20.7	12.5	12.5	4	49.7	24	66.67%	5	
534250	19.5	11	12	6.7	49.2	25	69.44%	4	
534426	18	13	11.5	6.5	49	26	72.22%	5	
529277	19.5	12	13	4	48.5	27	75.00%	4	
534347	18.5	6	14	10	48.5	27	75.00%	5	
534202	18.5	11	13.5	4.5	47.5	29	80.56%	6	
534187	17.5	10.5	13	6.2	47.2	30	83.33%	5	
534425	19.5	11	10	4.5	45	31	86.11%	5	
534188	15	12	8.5	7.5	43	32	88.89%	4	
534205	18	10	11.5	2.5	42	33	91.67%	5	
534163	18	10	8.5	1.5	38	34	94.44%	6	
534247	14.5	8	7.5	5.5	35.5	35	97.22%	5	
534396	19.5	0	8.5	2.5	30.5	36	100.00%	4	

박형준/2월/도약GS/7회/1번	채점자
	이정은
<p>1. 전반적인 총평</p> <p>전반적으로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 논점이탈은 거의 없었으나 결론을 맞게 기재했는지 여부에서 점수가 갈리기도 했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거절이유가 타당하다는 점에서 대부분 답을 맞추셨습니다. 그 중 판례와 비판까지 언급해주는 답안이 돋보였습니다.</p> <p>(2) 설문 2</p> <p>구성요소 적격에 대한 판례와 키워드를 누락 없이 써주셨어야 합니다. 목차를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강사님 답안처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성요소 적격 판례들을 모아서 기재한 후에 청구항 별로 판단한 답안도 가독성이 좋았습니다.</p> <p>(3) 설문 3</p> <p>다들 잘 쓰셨습니다. 문제에서 묻는바에 맞추어서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과 하자 치유 여부로 크게 목차 잡고 써주시면 대부분 비슷한 점수를 드렸습니다.</p> <p>(4) 설문 4</p> <p>라벨론과 종합적 판단 판례를 둘 다 기재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2월인데도 해당 판례 암기 정확도가 높았습니다.</p>	

3. 소결

2월이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압거나 논점이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잘 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하고 계십니다.

박형준/2월/도약GS/7회/2번	채점자
	이정은
<p>1. 전반적인 총평</p> <p>논점을 이탈하시거나 결론을 틀리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복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기능식 청구항인 것 자체를 캐치 못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특유 청구항이 헛갈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헛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마쿠쉬 청구항과 기능식 청구항, pbp 청구항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p> <p>그 외에도 결론을 틀리게 기재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순간적으로 헛갈려서 답을 틀릴 수 있는데, 답을 틀리게 되면 점수 감점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p> <p>(2) 설문 2</p> <p>균등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누락이 많았습니다. 침해라는 결론에 대해서 틀린 경우는 많이 없었으나, 균등침해 판단에 대한 서 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p> <p>3. 소결</p> <p>전형적인 논점이 아니고 답안을 자주 안 쓰는 논점이라서 실전 GS에서 다시 이 논점을 마주하셨을 때 틀리지 않도록 꼼꼼한 복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p> <p>실전GS가 다가오면서 심적 부담감이 크실 수 있지만, 답안을 채점하면서 보면 다들 잘 쓰십니다. 현 시점에서는 등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채워 나가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다들 파이팅입니다 !</p>	

박형준/2월/도약GS/7회/3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논점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설문이 총 4개로 비교적 많으므로 시간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결이 침해소송 법원을 구속하는지 물어보는 설문이었습니다. 중요 논점이므로 학설, 판례, 검토를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126조나 유력한 증거호 관련 판례를 작성하신 경우에도 일정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확인대상발명 확정 후 적법 특정 여부를 검토하는 설문이었습니다. 확인대상발명 확정에 있어 선결적으로 140조 3항을 작성하거나 청구범위의 파악방법 판례를 작성하신 경우 일정 점수를 드렸습니다.</p> <p>(3) 설문 3</p> <p>확인대상발명을 발명 Z로确定的한 후에 이의 실시 가능성을 검토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침해소송 계속 중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적법한지를 강하게 작성한 답안이 몇몇 있었습니다.</p> <p>이보다는 설문에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 발명이 상이한 경우라고 주어졌으므로 이를 강하게 적고 위의 논점은 약하게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p>	

(4) 설문 4

권리범위확인심판 계속 중 특허권이 장래로 소멸했을 때 심판의 취급을 물어 보는 설문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검토의 결론이 다른 경우, 설문의 해결은 검토대로 내려주시고 추가적으로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따른 설문의 해결을 더 내려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소결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빠뜨린 논점은 기본서나 판례집에 표시해 놓고 계속해서 반복해 복습해 주세요.

박형준/2월/도약GS/7회/4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각 설문의 묻는바가 명확하여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4번 문제인 만큼 시간 관리에 조금 더 유의해 주세요.</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권리 대 권리 심판으로서 부적법한지 검토 후 본안까지 판단해야 하는 설문이 있습니다.</p> <p>‘적부’와 ‘본안’을 목차를 달리하여 판단한 경우 가독성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본안에서 검토해야 하는 ‘이용 여부’ 판단을 적부에서 판단한 답안이 많았는데, 적부와 본안에서 해야 하는 판단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p> <p>(2) 설문 2</p> <p>선결적으로 140조 3항이나 확인대상발명의 파악방법 판례를 작성한 경우 일정 점수를 드렸습니다.</p> <p>또한 청구취지로서의 적법 특정 여부도 함께 사안 포섭한 경우 추가적으로 점수를 드렸습니다.</p> <p>3. 소결</p> <p>4문과 같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판례집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으셔야 합니다.</p> <p>하루에 5개 정도의 판례를 틈틈이 읽어놓는다면 판례 문제가 그대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p>	

<문-17>

4.2

I. 질문 (1)

1. 산업상 이용가능성 - 292항 불문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은
요한다.

2. 청구항 1 성질

청구항 1은 동원한징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용될 수
있는 '의료행위방법'에 해당한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 취지제 - 2국

사람의 질병 치료, 진단, 예방 등에 쓰이는 의료행
위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4. 비판

산업은 최광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바, 의료법은 제
외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취지제 부당하다는 견해 있다.

5. 검토

의사의 진료, 치료 행위에 제약이 가해져 인간의 건강
성이 무시될 수 있는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의사
의 치료행위에 대한 현격제한 규정이 없는 점 등



그러한 때 취제 라당하다.

6. 사안

청구항 1은 의약품외발명으로서 실용성 이용가능성 있으면서
제약이유 라당하다.

II. 선행 (2)

1. 신규성 의의. 취제-2972 (항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출원발명은 공지된 선행발명으로부터
적 신규한 것을 한다.

2. 청구항 2 내지 4 성질

청구항 2 내지 4는 모두 결막염 치료용 물질에 관한 것으로
즉 의약품외발명에 해당한다.

3. 의약품외발명 구성으로 취제

(1) 의약품외발명 구성

의약품외발명 구성은 그 자체로서 의약품외발명의 구성
원인이 해당한다.

(2) 약리작용

약리작용은 발해 물질의 내재된 속성으로서 의약품외발명
물질을 결합하는 계기에 분해하므로 의약품외발명을 형성하는

범위 내이며 구성요건으로서 의미는 가진 뿐 그 자체로 ~~주~~
~~범위~~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다.

(3) 의약특여방법

특여방법은 의약품이나 그 물질이 같고, 의약특여방법은
 도출해내는 데에도 상당한 특자나 노력이 필요하데
 이진 특허법 상 특허로 보호해줄지 않는 것은 특허법 목
 적에 반한다. 따라서 특여방법도 특허법상의 새로운 구
 성요건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4. 의약품조성방법 신규성 판단 취지

의약품조성방법 신규성 판단 시 그 용도가 사회문헌에 구체
 적으로 개시된 경우 신규성 부정되며 그 효과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있을 것은 아니다.

5. 사안

(1) 청구항 2

유도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정맥염 치료용으로서 약학적 조성물로서 이는 출원시 공지 논문
 에 구체적으로 개시된 바 신규성 부정된다.

(2) 청구항 3

약리작용이 포함될 청구항으로서 약리작용은 구성요건으로서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 청구항 또한 공지 논문
 정맥염 치료용으로서 구체적으로 개시된 바 신규성 부정된다.

(3) 청구항 4

의약품투여방법이 이해된 청구항으로서 투여방법은 새로운 구성
요건으로 의미를 가진다. 투여방법에 대해서는 높은 구성
요건으로 개시된 사항 보이지 않아 신규성 부정될 수 없다.

6. 결론

청구항 2, 3 개조항은 타당하나, 청구항 4는 부당하다.

III. 결론 (3)

1. 용이성시 요건 의의. 취지 - 4223항1호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명세서에 기술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2. 선행기술추가금지 - 4122항

제3자 불의라 방지란 위해, 발명 시 최초 명세서 등 기
재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3. 의약품투여방법의 생명 기재요건 취지

출원 시 약리효과가 기재된 약리효과가 명확하게 개시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리데이터 등이
기재된 시험데이터가 기재되거나, 이에 대신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발명이 인정됨과 동시에

명세서 기재사항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하자 치유 가복 제1제 - 2국

의약용도반명의 경우 약리효과가 나타나있는 시험데이터 등의 기재가 필요한데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후에 이러한 기재를 추가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은 추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5. 사안

(1) 반명의 실험 기재요건 충족 여부 - 2국

출원 씨에 약리효과 기재된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개시된 사실 없고, 甲은 선택형 치유 과정의 효과 뒷받침하는 실험데이터 기재 없으므로 甲 출원반명은 미완성 발명임과 동시에 명세서 기재요건 충족하지 못했다.

(2) 하자 치유 가복 - 2국

甲은 출원시에 실험 데이터는 기재하지 않은 바 후에 반명을 통해 추가하는 것을 신규사항추가로서 허용될 수 있다.

(V. 결론 (4))

1. 침해 판단 제1제

(1) 종합적 판단



특허받은 의약품의 일반적인 기능, 용도, 제품 포장지, 포장 박스 등에 기재된 사항, 광고의 내용 및 방법, 수요자가 인식하는 일반적인 기능, 용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라벨 등 기호로 판단

약사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 의약품의 라벨 등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라벨을 입증이다.

2. 검토 - 실제 라벨로

법정안정성 등 고려한 때 라벨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자가 판매시 그러한 용도로써 사용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참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

① ^{의약품}온콜라틴이 포함된 심장병 치료제로서 특허발명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② 이 판매시에 ^{의약품}결막염 치료제 ^{의약품}찾오는 환자들에게 널리 ^{의약품}알려져 판매하고 사람들이 결막염 치료 위해 사용하는 점, 뉴스·광고로 인해 결막염 치료효과가 널리 알려진 점 종합적 고려하면 의약품도 구성 포함한다. ③ 따라서 2 판매는 1 특허 참해다.

(참)

20.2

<문-2>

I. 섯문 (1)

1. 신규성 의의. 특허-29조 1항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출원발명은 섯행기술과 다른 것은 아니다.

2. 출원발명 ^{청구항} _{성질}

甲의 청구항 1은 만충시키고 결합시키는 수단인 표현이 사용된 바, "기능식 청구항"이다.

3. 특허요건 판단시 해석방법 섯시

(1) 청구범위 해석

청구범위 해석시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발명의 생명 등 기재로 제한·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

기능식 표현을 포함하는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에도 일반적 청구범위 해석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3) 과한 기능을 가진 모든 발명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능을 가진 모든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발명의 생명 등 창작



발명의 설명 등에 용어의 의미가 정의·설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를 창작하여 청구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4. 사안

(1) 청구범위 현황 - $A+B+C$

청구항에는 $A+B+C$ 로서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설명은 통해 제하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θ 청구항 1은 ' $A+B+C$ ' 발명으로 특장된다.

(2) 신규성 여부

출원 초기 공지된 인과인스케이트 $A+B+C$ 는 출원발명 $A+B+C$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θ 출원은 신규성이 부정된다.

5. 결론

θ 출원에는 신규성 위반 하자가 존재하므로 등록할 수 없다.

II. 결론 (2)

1. 침해요건판단시 해석 취지

(1) 발명의 설명 보충해석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해석~~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은

구체적으로 안 & 없는 경우 발명의 설명은 참작하여
보충해석할 수 있다.

(2) 기능식 표현 의미 명확한 경우

청구항의 기능식 표현 자체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도
같다.

2. 특허발명 해석

청구항의 기재사항만으로는 기능식 구성은 구체적으로 안
수 있고, 기능식 표현인 명칭시키고 결합시키는 명칭 결합수단
자체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발명의
설명 기재를 보충해석해 보면 특허발명은 'A+B+C1, A+
B+C2, 또는 A+B+C3'이다.

3. 문언침해 여부 - 예

① 특허발명과 2 실시발명을 구성 C1, C2 또는 C3 과
C5로 차이가 있으므로 문언침해 아니다.

4. 균등침해 여부

(1) 균등침해 관련 쟁점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에도 균등권이 적용될 수 있
다는 입장이다.

(2) 판단방법 쟁점



① 특허발명과 실시발명의 구성 개별적 기능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균등침해 부정한 바 있다.

②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3) 점진

기능적 청구항에도 일반적인 특허발명과 같이 균등권을 적용하여 균등범위 내의 실시를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적인 균등권 적용 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사안

C1, C2, C3, C5의 차이는 부품 형태나 배치 관계 등을 고려한 때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기술적 노력 없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양 사안은 시지 균등하다. 따라서 2 발명을 균등침해다.
 실사

5. 결론

균등범위에 속하므로 침해다.

〈결〉

14

7..

5

I. $\frac{K_D}{2\epsilon} (1)$

1. ~~소득~~ 개인 범의 확인 실패 - 1352 2회

분쟁 예방 및 간이.신속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인은
특허반영 발원법, 확인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할 수 있다.

2. 기속부족

(1) 문제지정

각각 병의 학인 심플 심플이 침해응응에 기속응응을 마칠지 명문
계지 공이 응제될다

(2) 지정

① 재개발의 환경실태의 측지 등 고려하여 지속적 공평하
는 공평, ② 재개발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 복합하
는 공평. ③ 심판재판등을 거쳐 공평하를 지출하였다.

(3) 判例

1) 지계방위 확인실패 목적: 해시

개체범위 학인실태은 특하게 효력이 미치는 것만은 범위에
학정하는 제도로서 당사자 사이 권리관계를 최종적으
로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다.

2) 결론

따라서 우리들은 학원생활 학원생활이 참하소용이없
기속조이 반사중이라고 볼 수 있다.

(4) 검토

특허법의 확인심판 제로 취지, 164조 규정 취지 등 고려할 때 공백이도 있을 타당하나 명문 규정 없는 이상 취지에 따른 수 밖에 없다.

3. 사안

특허법의 확인심판 인용심결이 침해소송 법원 구속한 수 없다. 다만 심결은 침해소송에서 제출한 경우 유리한 증거 인정되므로 타당한 이유 없이 배척한 수 없다.

II. 결론 (2)

1. 확인대상방법 확정

(1) 특정방법 취지

1) 설명서 기준

확인대상방법 특정할 때에는 청구범위에 대응되는 설명서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2) 도면 변경 불가

도면에 기재된 사항으로 확인대상방법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사안

도면에는 방법 군이 기재되어 있어도 변경하여 파악할 수 없으므로 설명서 기준으로 설명서에

기재된 "발명 $Y(A+B+C)$ "로 파악된다.

2. 적법 특성 여부

(1) 청구치지로서 특성 취사제

심결 확성 이후 앞서보재의 범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실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2) 청구이유로서 특성 취사제

특허인대상 발명의 구성 제약을 기재하지는 않더라도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되는 구성은 기재하여 공통점·차이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3) 사안

발명 $Y(A+B+C)$ 는 사실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특허발명 $X(A+B+C)$ 과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되는 구성은 명확히 기재한 바 적법 특성될 것으로 보인다.

III. 결론 (3)

6.5

1. 특허인의 이익

제시문의 특허심판에서는 특허인의 이익이 인정될 것은 없다. 즉, 심판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불만이 현존하고, 그 불만 해소를 위해 심판 청구와 결과적인

선언인 것은 아니다.

2. 학인대상방법과 실시방법 다른 경우 위례

특히 제1항위학인심판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할 대상으로 한정되고, 소극적 제1항위학인심판에서 장래 실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법성이 문제될 뿐이며, 학인대상방법과 실시방법이 상이한 경우라도 학인대상방법을 기준으로 소극판단 해야한다.

3. 학인대상방법 특징

실용성 및 도면에 모두 방법 준가 기재되어있으므로 실시 2 실시방법과 다르더라도 준로 한정된다.

4. 침해인용 관련

위례에 따르면 침해인용 계속중인 사범으로 제1항위학인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침해인용 계속 중인 사범 문제되지 않는다.

5. 장래실시 관련

(1) 관련 규명 - (35) 조항

소극적 제1항위학인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는 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학인대상방법 적법 문제된다.

(2) ~~위시~~

1) 이해관계인 의미

135조 2항 이해관계인이라, 특허권자로부터 대항 받아
 손해 입거나 손해 입은 영려가 있는자를 말한다.

2) 학인대상발명 규정

학인대상발명을 현재 실시발명 뿐만 아니라 장
 래 실시 예정 발명도 될 수 있다.

(3) 사안

2이 ~~충분~~ ~~충분~~한 학인대상발명 군은 현재 실시발명 √
 마는 다르고, 장래 실시 예정인지는 불명확하다.

6. 결론

2이 발명 군은 장래 실시 예정이라면 ~~충분~~ ~~충분~~하고, 그
 실시 않으면 ~~불충분~~하다. 다만 발명 군이 장래 실시
 가능성이 있으며 ~~충분~~ ~~충분~~할 수 있다.

11. ~~원~~ (4)

3.5

1. 문제점

특허발명이 ~~충분~~ ~~충분~~한 만큼로 ~~충분~~ ~~충분~~한 경우 ~~충분~~ ~~충분~~한
 이익, 학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다.

2. ~~위시~~

(1) 상표법 관련

상표법 관련 사안에서 취소심결 확정으로 상표권이 갱
 재심결한 경우 유효하게 존속하던 기간에 대해서 재
 기범위 학원심판 소의 이익 인정하는 바 있다.

(2) 주류 판매

주류범위 학원심판은 현결하는 특허권 주류범위 학원이
 그 목적이 있는 바, 특허권 인정결한 경우 뿐만 아
 니라 장래 인정결한 경우에도 ~~학원~~ 부속법하다.

3. 검토

주류범위 학원심판은 분쟁 예방 뿐만 아니라 조속한
분쟁 해결 목적이 있는 바 장래 인정결한 경우
 에는 학원의 이익 ~~인정~~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사안

결정기간 만료 시 특허권 장래로 인정하는 바 학원
 의 이익 인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 없으므로
 심판청구 적법하다 / 심판원은 주류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으므로 기각상결 예상된다.

④

8-4

I. 서문 (1)

1. 특허법위헌심판 - 1352 회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특허권자는 특허
반영 특허법의 학원 위해 특허법위헌심판 청구할 수 있다.

2. 권리대리 여부 - 2구

(1) 정당한 사례

권리대리인 정당한 특허법위헌심판은 원칙적으로
부수법하고, 예외적으로 양 반영 이용관계 (98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법하다.

(2) 동일성 관련 사례

특허대상반영이 후특허반영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권리대리인 특허법위헌심판으로 볼
수 있다.

(3) 사안

특허대상반영 $A+B'+C$ 와 2 특허반영 $A+B+C$ 를
비교해 보면 B와 B'의 차이는 과세해결을 위한 구
체적 수단으로서 극미량용기 등의 학기. 삭제. 변경 등이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는
낮다. 이는 양 반영이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甲이 청구한 권리법

위 현인심판을 권고대처기 적극적 권고방위 확인심판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

3. 이용침해 여부 - 소

(1) 이용침해 범위 체계

이용침해란 실시반명이 미등록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반명이 선행 특허반명이 새로운 구성요소를 추가한
발명으로서 선행발명의 특징을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수~~ 실시반명에서 선행 발명이 반명
으로서 일체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선행발
명과 동일한 발명 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2) ~~물론~~ 균등판 판단방법 체계

양 발명이 균등한지 여부 판단 시에는 ① 양 발명의
과제 해결유위가 동일한지, ② 양 발명의 작용효과
가实质上 동일한지, ③ 통상 기술자가 쉽게 생각
해낼 수 있거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문언이용 여부 - 소

물건 $A+B'+C$ 는 \oplus 특허반명 $A+B$ 와 비교
하여 B, B' 의 구성 차이가 있으므로 문언이용
침해 아니다.

(4) 균등이용 여부 - 소

구성 B와 B'은 비교해 보면 실시예에서 유사한 기능 작용을 포함하는 하나 기록상 제출된 증명문으로는 통상 기술자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므로 균등한 발명은 이용함으로써 되기 힘들다. 따라서 균등이용침해가 아니다.

4. 결론

특허대상이 아니고 다른 발명법 사유로 보이기 않아 심판청구 적법하고, 2의 실시 발명은 甲의 특허발명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 이유 없다. 따라서 기각심판 예상된다.

II. 서문 (2)

1. 학인대상발명 특허 회제

(1) 마이클슨 특허

학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되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2) 친구추시환 특허

학인대상발명을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차별될 수 있는 점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3) 종합적 고려

학인대상반영 명명시에 불명확한 기재가 있거나
명명시와 양면이 일부 불일치한 부분 있더라도 나
머지 명명시-양면 기재는 통해 명확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특정될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안

명명시에 "대략"이라는 불명확한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 명명시-양면 내용을 통해 구성 B'은 명확
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학인대상 반영을 사의를
형성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특허반영
과 서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특정될
것으로 볼 수 있다.

<결>

— 이 하 여 백 —

[문제-1](특허법은 이하, 법이라 한다.)

I. 선택 (1)

1. 링구항 | 발명 ~~심권~~

온도차타단을 집안하여 결박염을 치료하는 방법, 즉 의
술행위에 관한 발명이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조항에 관한 부분

특허는 산업 발명을 그 목적으로 하여 부여되는 바, 산
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만 그 대상이 된다.

3. 의료행위 관련 발명의 경우 제외

사람의 질병을 진단, 예방, 치료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4. 비선

특허법의 '산업'은 광의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의료
산업은 배제함이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5. 검토

- ① 인간의 존엄성 및 의료행위를 관습으로 보는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 점 고려할 때,
- ② 미국과 달리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제한 규정도

많은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세계제의 제도가 타당하다.

6. 사안의 해결 - 기결이후 등록(각국)

① 항구항 1은 의결행위에 관한 반영으로만 권리 등록에 한정한 것으로 보아, ②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전제되는 것으로 보아, ③ 심사관의 기결이후 등록한다.

II. 실문(2)

1. 신규성 조건의 상

특허는 공계의 디자인, 공개되거나 등재된 것은 없음을 요하는 특허조건이다.

2. 각 항구의 상

① 항구항 2는 문헌상 타인의 의결행위에 관한 의결행위반영이며,
② 항구항 3 역시 의결행위반영이나 약제기반을 부가 기재하면,
③ 항구항 4는 항구항 2의 반영은 특허방법으로 한정하는 의결특허방법 반영이다.

3. 의결행위반영의 구성은 세계제

(1) 의결행위반영의 경우

특정 문헌과 그 문헌이 기재한 의결행위가 반영의 구성

으로 해명한다.

(2) 약하기전의 경우

다만 특정 물건에 새겨진 특성을 드러내는데 제기에 불과한 약하기전의 경우 그 지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포함될 수 없으며, 다만 특정 물건이 가지는 의사통로를 행할 수 있도록 내세워진 구성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

(3) 의사통여방법의 경우

관습 사회제 라우어전에 따르면, 의사통여방법은 ① 본래 의사통여방법과 같고, ② 의사통여방법 연계를 상응한 노력·비용 투자에 예상하지 못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원리적으로 보충을 제공하는 특허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바, ③ 의사통여방법 역시 의사행위가 아닌, 물건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한다.

4. 사안의 해설

(1) 항무항 2의 경우 - 개량아귀 타당

甲의 특허권인 권 등록에 물건인 '물류파타인'과 의사통로인 '절박형 지수통'이 모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는바, 발명의 구성요건 모두 충족하여 신규성을 충족하게 된 점과 심사관 개량아귀를 타당하다.

(2) 항무항 3의 경우 - 개량아귀 타당



'전액 세금을 인정받게는'이라는 약어로는 부합한다 하여
그와 반영의 구성으로 인정된 수는 없으므로, 청구항 2와
같이 문장의 용도가 모두 충족되어 신규성을 충족한 바,
기각을 하명한다.

(3) 청구항 4의 경우 - 기각을 부당

'1회에 1방울 1회에 2회 잠안'이라는 특허방법이 구성으로
존 부합된 것으로, 그 특허방법이 공제되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아 신규성 부합되지 않으므로, 기각을 부당하다.

III. 심문 (3)

5.5

1. 위약금도 반영의 반영의 심문 기재인 뒤(제)

특정된 이 약어법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등이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지출하는 뒷반환하는 약어법이나 등을
확립하거나 이에 대안한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해야만 반영의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종이에 명
제시 기재인지를 충족한지는 인정된다.

2. 반영은 통한 하라유 가부 뒤(제)

위와 같은 약어법을 약어법이나 또는 구체적 확기세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가하는 반영은 신사상 후기에
해당하여 허용된 수 없다는 인정된다.

3. 사안의 해설

(1) 특별한 사정 조류무 (조류)

甲 측은 권 온라인의 약리가 병행하게 발생
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선행 데이터 기재 조류 (조류)

여기서 甲은 온라인의 전방형 리스용도에 관한
데이터를 기재하거나 그에 대신한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개시해야 한다.

(3) 변경 가부 (조류)

甲이 치료효과는 뒷받침하는 선행데이터는 추가하는 등의
보증을 할 경우, 이는 미연성 반응을 완성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 하, 그다 같은
보증을 하는 경우를 다루는 수는 없다.

IV. 결론 (4)

4.2

1. 문제점

의약품의 특허 침해 판단은 어떻게 한 것인가 문제된다.

2. 해결책

(1) 사용방법권 해결 - 종합적 판단

해당 의약품이 갖는 용도 내지 기능, 침해 제품의

특성에 기재된 용도, 상인·신인의 이용 등 여러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할 바 있다.

(2) 특허법원 (2017) 2 - 라벨론

침해를 주장하기 기재된 용도에서 기능을 고려하여 판
단하는 라벨론을 취할 바 있다.

3. 검토

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라벨론은 원유로 하되, ② 침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물 판매 행위·위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4. 사안

① 비록 G의 판매자름 Y에는 '삼양병 피루세'만이 의약품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② Y는 '올로라다인'이라는 문장으로 표
현하고 있다, ③ G은 甲 특허청 후 이를 '선택형 디
스톡'으로 각각 관여하여 판매 중인 바, ④ Y는 구매자를
에게 이를 선택형 차로 구매 사용하는 이상, ⑤ 침해로
봄이 타당하다.

5. 심판의 해명 - G 침해 행위

G은 Y 판매로 甲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판)

(판)

NA.V

[문제-2]

I. 선택

1. 항항의 선택

'완충' 및 '전환'이라는 기능적 관념을 포함하는 기능식 항항에 해당한다.

2. 기능식 항항 특허권 판단시 해석방법 위배제

(1) 항항의 기능 판단 원칙

항항위에 기재된 발명이 특허로서 인정되거나 기재된 발명으로서, 항항위를 기준으로 발명은 파악해야 한다.

(2) 발명의 선행 관측

다른 발명의 선행 및 관련 관측하여, 발명 특성의 용도를 갖는 경우 이를 고려 그 용도에 의해 전환되거나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3) 기능·제한 해석 금지

다른 이 경우에도 발명의 선행 등에 의해 항항위를 기능·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

(4) 기능식 항항-미관개시

이러한 법리는 발명의 구조·방법 등이 아닌 기능·성질 등으로 전환한 기능식 항항의 경우에도 미관개시이다.

(5) 그러한 기능은 갖는 모든 발명

따라서 그러한 기능 등을 갖는 모든 발명으로 해석해야 한다.



(6) 발명 용어 강의내린 경우

발명의 설명 등에 용어에 대한 강제가 없는 경우 이를 함축하여 발명을 파악해야 한다.

3. 검토

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러한 기능을 갖는 모든 발명으로 해석하여 출신인의 항구범위 강제를 유리함비 타당하다.

4. 사안 - 신성심 부킹

① 甲 항구항에는 'A+B+C'의 발명의 기재가 있는데,

② 이때 'C'를 '원동' 및 '전송'의 ~~기능~~ 기능을 가지는

모든 발명으로 해석해야 하고, ③ 이때 발명의 설명에

위에 이는 제한 해석할 수는 없는 바, ④ 'C'는 공

지된 인가인스케이트 'A+B+C4'의 'C4'를 포함한다 한 것

으니까, ⑤ 甲 항구항은 공발명을 포함하여 신성심 부킹

관련 한 것이다.

5. 설명의 해석 - 등록 불가

① 따라서 甲 항구항은 그로293항 위반으로 등록 불가하다.

② 다만, C를 C1에서 C3으로 강제를 보강하면 등록 가능한 것이
다.

II. 실문 (2)

1. 문제김

①가능식 청구항의 참예인 인연시 해석방법과, ②가능식 청구항의 근원을 직접 가부가 문제된다.

2. 가능식 청구항의 참예인 인연시 해석방법

(1) 사례 - 보충해석

①가능적 표현은 포함하여 반영의 구체적인 가능적 구성을 알 수 없는 경우 반영의 설명·도면은 참작하여 보충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②이는 가능적 표현이 그 자체로 명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한다.

(2) 검토

가능적 표현만으로는 반영의 존속관계 및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바, 사례에 타당하다.

(3) 사안

① 甲 청구항의 'A+B+C'는 'C'가 가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바. ②그 자체로는 가능적 구성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③반영의 설명을 참작하여 보충해석한 것이고, ④'C'는 'C1', 'C2', 'C3'로 해석되어야 한다.

3. 문헌 참예 여부(소)

甲의 'C1'에서 'C3'과 乙의 'C5'는 다른 구조라, 문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능 관해 여부 (각각)

(1) 취례

- ① 구성의 개편의 가능성은 관해 관능 여부를 판단한 취례와
- ②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기술 노력 없이 쉽게 변형 가능하기. 즉 관능범위 내에 들어선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취례가 있다.

(2) 맛

- ① 가능한 향방향으로 관능원이 직통관상한 한 것이며, ② 그 같은 관상 향상의 기술자가 용이 변형 가능한 관능범위 내에 들어선지를 기준으로 한다 한 것이다.

(3) 사안

- ① 甲의 향방향 1에서 'C'를 'C1'에서 'C5'로 해석한다,
- ② 乙의 'C5'가 이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기술 노력 없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한 것일시, ③ 관능 관해에 해당한다.

5. 상품의 예전 - 관해 인정

乙의 행위는 甲의 특허권을 침해한다.

[출]

14

[문제-3]

I. 선택 (1)

1. 권내방위확인상판 제135조

간이. 신속한 보행 해소 및 예방을 위해, 권내방위 주위에
대한 공적 판단은 구하는 레이어이다.

2. 권내방위확인상판 상판의 함해상 공적의 종류

(1) 함해

① 공적으로, 권내방위확인상판의 간이. 신속한 보행 예방 등이
목적. 취지는 공적으로 드는 전제. ② 부공적으로, 관한 함해
를 공적으로 드는 전제. ③ 권공적으로, 함해상공을 가진 뒤
에는 공적이 있다든 전제가 있다.

(2) 함해

권내방위확인상판은 특정한 객관적인 권내방위는 함해
하는 기준으로, 함해상공과 달리 함해상 권내방위를
함해상으로 함해하는 기준이 아닌 바, 함해상공에 대해
그 함해의 공적이 있을 수 있다 한다.

(3) 함해

① 권내방위확인상판의 신속한 보행 예방. 예방 취지로서
공적임을 인정 함해한다. ② 공적에 대한 영공 규정
없는 함해 함해상 함해에 따른 득법에 있다.

3. 사안의 개념

그이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상환에서 안봉영이 신라대로 이름 등록 비용 법원은 구속 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한 능가로서 영향을 확대 시킨 아무 인사 없이 이미 배치 된 정보를 이용 수 있다.

II. 심판(2)

4.5

1. 확인대응판정의 유형

(1) 위배제

- ① 확인대응판정을 피하기 위해서 특허법정의 청구범위로 대응하는 심판서를 기준으로 판정을 확정해야 하며,
- ② 본안에 대해 판정을 법원에 대항할 수는 없다.

(2) 사안

따라서 그이 청구한 확인대응판정의 '심판서'를 기준으로, 판정 문 Y(A+B+C2)가 확인대응판정으로 확정 된다.

2. 확인대응판정의 직접 특정 여부(245)

(1) 위배제

1) 청구취지로서의 특정

확인대응판정은 사회상 다른 것 과 구별 된 것 으로 강조 구분 을 특정 해야 한다.



2) 항나아유로서의 특징

또한 항나아유반응은 특허반영과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는 강점으로 기재함으로 특징되어야 한다.

3) 신성시도 요건의 불인리가 되는 경우

도면에 불인리가 있는 경우나 하더라도, 항나아유반응이 특허반영의 기재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서 두 기재의 직접관계에 특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안

- ① 상술한 바와 같이 항나아유반응은 $Y(A+B+C)$ 로서,
- ② 사하중양항 다른 것과 구별되고, ③ 특허반영과 대비할 수 있는 강점으로 특징된 것으로 보이며, ④ 도면에 불인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재범위 속의 일면에 문제가 없으므로, ⑤ 항나아유반응은 직접관계에 특징되었다.

III. 결론 (3)

1. 문제점

사안과 같이 특정 기재범위항나아유반응의 항나아유가 현재 신성시도 반영과 항나아유반응이 다른 경우, ① 무엇이 상반대상이 되는지와 ② 신성에 항나아유가 포함되는지 ③ 장에 신성 예정 문제가 존재한다.

2. 권리방기확인서상인 확인의 이익

권리방기확인서상인 심판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한불하는 불안을 제기하는 유익한 수단이어야 한다.

3. 심판 대상 확정

(1) 취지

특히 권리방기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행위와 심판청구인이 신세 신사하는 행위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심판 대상으로 심판청구인이 신청서 등에 특정한 확인대상행위가 대상임을 밝히는 것이다.

(2) 사안

따라서 Z가 신세 A와 B와 확인대상행위 신청서 등에 기재한 조항 $Z(A+B+C)$ 가 심판 대상으로 확정된다.

4. 이해관계 문제

(1) 특허 권리방기확인상인 행위 법적 효과로 상

특허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만이 심판청구인 자격을 갖는다.

(2) '이해관계인'의 의미 취지

특히나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

(3) 강제 퇴거 여권 관련 취지

이해관계인은 확인대상행위로 인해 권리 불행 불

아니라 강제 실시 여부의 반경은 확인대상반영으로 삼을 수 있다.

(4) 사안

① 것은 甲으로부터 침해행위행위를 제1항에 권리의 대상으로 받은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② 것이 비록 현재 실시 중인 반경은 아니나 하더라도 강제 실시 여부의 반경이 아닌 확인대상반영으로 삼을 수 있다.

5. 강제 실시 가능 문제

(1) 제1항

만일 강제 실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확인대상반영의 경우 상환 행위는 부각행위라는 입장이다.

(2) 사안

그이 조를 관해 실시 여부 또는 실시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사안을 보지 않는다.

6. 실시의 해명 - 상환행위 의무(각주)

위와 같은 사안 종합할 때, 그의 상환 행위는 무효하다.

IV. 결론 (4)

1. 문제점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시 강제로 소멸하는 바, 이 경우 심판
청구의 이익이 존재한다.

2. 항원

- ① 라이 분생 해원은 가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긍정적,
- ② 특허권 소멸사유는 심판청구 이익이 없다는 부정적 있다.

3. 취소제

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 중 특허권이 강제로 소멸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심판청구 이익이 소멸하지 부각사항으로 인정된다.

4. 심판

- ① 특허권이 소멸 소멸한 경우는 별론. ② 강제 소멸시 관련하
라이 분생을 해결하기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이용하
수 있으나, ③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는 점이 타당하다.

5. 사안의 해결 - 특허 기각심판

따라서 심판원은 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기각심판
내려야 한다. 다만 취소제의 소멸에 따른 경우 각하심판
내릴 것이다. [출]

[문제-4]

I. 선택 (1)

1. 논점 정리

① 해당 상품의 권리에 권리 의무를 각부 필한 후, ② 불만
관청하여 이용권해 의무를 논한다.

2. 각부 필한-권리 의무(각)

(1) 각부식 권리방식 확인심판 조항으로 함

간이. 신축한 불만 예방. 해정을 위해, 특허심사가 확인대상
반영이 특허반영 권리방식에 속한지 아닌 지를 지리이다.

(2) 권리 의무 각부식한 하부 필한

① 원리적으로 신 특허심사가 후 특허심사는 대상으로 하는 각
각부식 권리방식 확인심판은 허용 않는다. ② 이용권해인 경우
허용하는 입장이다.

(3) 사안

① Z은 $A+B+C$ 의 특허권자인데, ② Z이 신사는 반영이나
甲이 확인대상반영으로 특정한 $A+B+C$ 는 B'에 의해
B와 차이가 있고, ③ 그 차이를 리해해정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권리증거들의 부가. 삭제. 변경 등을 담고서는
임의로 신신적으로 증명하는 볼 수 없다. ④ 따라서
甲의 승환 할는 권리 의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
각부식한다.

3. 보완입원 - 이용^한 여부(學)

(1) 이용관계 법의 취지

후 반영이 미숙한 경우라도 이용관계 성립시 종래에 해 당되네. ① 이용관계는 신 특허반영 가동식 구성에 새로운 가동식 요소는 부가한, 신 특허반영의 요소를 전부 포함해 이를 그대로 이용하다, 신 특허반영의 반영으로서의 전체 상의 전체 또는 일부에 해당한다 것으로서, ② 이는 전 문한 반영을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한다.

(2) 문헌 이용 여부(學)

① 甲의 특허반영은 $A+B$ 이고, ② 乙의 혁신대상반영은 $A+B+C$ 인데, ③ B와 B'의 차이가 나열해본 후 한 구 회적 수준에서 추가·삭제·변형 등에 지 내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의 발생을 알 수 있을 것 이 있는 바, ④ 신안으로 응수하리니 본 두 문헌 이용관계에 해당 안된다.

(3) 준용 이용관계 여부(學)

1) 준용의 의미·취지·근거

아무런 사실 준용을 가하지 않고서도 하의 관계에 대한 특허권 침해 하의 사실 방지는 위해 취지로서 학 관법 법이론, 반영된 구성이 준용한 사항 반영에 속 한다는 보도 이론이다.

2) 예



- ① 라라베전경기의 용인성, ② 작동원리의 용인성 용인성,
 ③ 구성변경의 용인성을 의미하며, ④ 침해행위가 사후가도 영
 역에 속하지 않고도 권리 ⑤의식적 제타에 대한 것 이한다.

3) 구성변경의 용인성 관련 사례

통상의 가환이면 두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양을
 이한다.

4) A안

- ① Z의 B'는 B와 차이가 있는데, ② 이는 통상의
 가환이면 두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영
 거되는바, ③ 구성변경의 용인성을 충족하지 않게 되므로
 ④ Z는 甲 발명인 조는 발명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 ⑤ 따라서 준용이용권에 부정된다.

4. 실문의 해설 - 기각심판 여부

- ① 甲의 승진청구는 적법하나, ② 후임대승반영이 甲의
 기각에 속하지 않아 기각심판된 것이다.

II. 실문 (2)

1. 후임대승반영 적법특성 사례

(1) 항하지로서의 특성

후임대승반영은 사후청구 다른 것의 구별된 두 개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2) 항이구대역 특정

특한 특허반영의 대역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3) 인부 불명확한 표현이 있을 경우

특수대응반영의 설명에서 표현이 인부 불명확하거나 인부 불명확한 표현이 있더라도, 특수대응반영의 설명 아래 대응한 표현 등을 참조하여 특허반영의 구체성에 충족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적당하게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인의 해석

- ① 비록 甲이 설명서에 구형 B' 특성에 있어 '대략'이라는 불명확한 기재를 했으나, ② 설명서의 나머지 내용과 여러 문맥에 의해 구형 B'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다면, ③ 구체성에 족한 정도에 있어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④ 직접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아나 예백)